가이오에게 6가지 미래전도를 알려준 요한

-복음으로 여는 요한삼서-

창세기 39:1-5, 요한삼서 1:2

정윤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말씀 한 마디로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지, 정, 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첫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온 인류가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전에 모였사오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며 세계복음화를 위한 다락방전도운동의 제자요 주역이 되어서 237 나라를 살리는 주역, 대표적인 모델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은 가장 모델적인 인물이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지만 크게 갈등한 적이 없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절대계획 속에 있다.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나에게 주셨는가. 질문을 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과 해답을 주신다. 그리스도와 정확한 복음의 비밀과 언약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을 볼 수 있었다. 요셉은 복음과 말씀 속에 있었다. 요셉은 자신만 형통했을 뿐 아니라 그가 있는 현장도 더불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었기 때문이다.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가이오라는 이름은 당시 로마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름이라고 한다. 가이오는 로마사람이었지만 복음을 받고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돕는 자로, 로마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사랑받는 아들과 같은 제자였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와, 가이오가 속한 교회에 보낸 편지인 요한삼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요한삼서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들은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이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하나님의 미래전도 6가지의 비밀 속에 있었지만 '디오드레베'는 사탄의 올무, 틀,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는 다녔지만 미래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는 요한삼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미래전도 6가지 도구인 LVTNPO 즉, Leverage, Vessel, Transmission, Nobody, Platform, Outsourcing을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Leverage는 영적인 지렛대를 의미한다. 절대 가치있는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붙잡으라. 영적서밋은 지금 바로 결단하면 될 수 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알려준 영적인 지렛대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되기 위한 영적인 비밀들(지렛대)은 무엇일까?

(1)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러면 겸손하게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사탄 때문에 속아서 불신앙하여 타락했고 우리가 오만가지 문제 속에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영접한 우리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것이라는 복음메시지의 틀을 알고 묵상해야 한다.

(2) 이 사실을 알고 성령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기도를 조금만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형통의 응답을 받게 된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3)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 주일예배에 성공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시간표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4) 주일예배의 핵심은 강단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강단메시지에서 답을 얻고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면 자연스럽게 강단메시지의 제자요, 증인으로 서게 된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준 강단메시지는 인생 전체를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지렛대인 레버리지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것이다. 그러나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는 순종, 복종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강단메시지가 인생의 레버리지가 될 수 없었다. 요한삼서 1장 9절을 보겠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리더가 되어야 한다. 사탄이 가져다 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돈, 쾌락, 성공중심에 있으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 바벨탑을 만들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

2. Vessel, 미래전도 두 번째는 영적인 그릇이다.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들이 속이 좁고, 생각이 짧고, 그릇이 작을 때 발생한다. 우리 안에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질수록 나는 큰 그릇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게 된다. 우리들의 그릇을 크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9가지 배려'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9가지 배려'는 높이, 깊이, 넓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이다. 모든 사업, 공부, 인간관계, 영적인 것들에 이 9가지를 적용하면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 큰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리스도와 같이 큰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3. Transmission, 전달과 소통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참사랑과 참된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하였다. 사도 요한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진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을 보여 주

었다. 우리들도 후대들과 237나라에 62가지 성경적인 전도시스템과 RUTC, OMC, RU, 전도캠프와 집중 그리고 237복음화시스템을 잘 전달해야 하겠다. 이 모든 것이 어렵고 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선 우리들이 나의 현장에서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의 응답에 집중한다면 이 모든 응답은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복음전달의 키는 복음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분, 3분, 구원의 길 그리기, 하나구 쓰기, 10분 복음소식 암송하기, 류목사님 복음메시지 듣기 등을 지속하면 된다. 먼저 여러분이 영접, 전도, 이미지트레이닝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영접하게 된다. 안된다고 낙심할 것이 없고, 포기할 일이 절대 아니다. 계속 기도하며 방법을 찾는 것이다.

4. Nobody, 네 번째 미래전도의 도구는 노바디, 마스터피스이다. 우리는 현장에서 노바디의 인생작품(걸작)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도 6가지 불신자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할 수 없다.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모든 현장을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의 현장의 사람들을 사탄의 손에서 그리고 지옥권세와 운명, 사주, 팔자에서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5. Platform, 다섯 번째 미래전도의 도구는 플랫폼이다. 플랫폼이란 '소통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복음의 센터, 치유의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틀린 플랫폼의 역할을 하였다. 요한삼서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디오드레베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요한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기에 보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였다.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이 주인행세를 했던 것이다. 우리는 주인행세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악한 말로 사도들을 비방하였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다. 또한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기도 하였다. 디오드레베는 교회를 파괴하고 전도를 막는 사탄의 플랫폼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11절처럼 하나님의 선한 복음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한다. 요한삼서 11절을 함께 보겠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 복음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생명운동, 영접운동을 한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 세상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복음, 오직복음, 완전복음을 위해 도전하면서 9가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된다.

① 1, 3, 8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 안에서 ② 편집, 디자인, 설계되고 ③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복음적으로 변하고 ④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를 누리게 된다. ⑤ 237, 보좌,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 ⑥ 24, 25, 영원을 누리게 된다. ⑦ 그러다가 어디를 가든지 파수꾼, 치료자, 삼중직의 대사로 쓰임받게 된다. ⑧ 결국은 237, 치유, 서밋 의 주역이 되고 ⑨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가 되어 새로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게 된다. 결국은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되리라'고 말씀하신다.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을 믿는다.

6. Outsourcing, 위탁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가장 소중한 복음사역을 우리들에게 위탁해 주셨다.

(1)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아웃소싱' 위탁해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주님의 아웃소싱의 언약을 붙잡고 평생 동안 전도와 선교사역을 한 제자가 오늘 요한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다.

(2) 사도 요한은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에게 복음을 아웃소싱하고 있다. 요한삼서 1장 12절을 보겠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매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바라고 있다. 1장 14절이다.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하루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에게도 대면으로 성경적인 전도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결론으로 요한삼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의 언약은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같이 미래전도를 위한 6가지 도구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영원한 비전은 237나라의 복음제자들에게 미래전도 6가지 도구를 알려주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위해 24시간 기도하고 공부하고 일한다면 우리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강단메시지에 성공하면 나머지는 다 되어지게 되어 있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루에 10분만 집중하여 깊은 호흡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주에는 내가 더 준비하고 갱신해야 할 미래전도 6가지는 무엇인지 기록해보기를 바란다.

예수생명, 예수능력 안에서 참사랑RUTC와 237, 일천만제자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명절을 맞았지만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과 가문을 살리는 그러한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